

# 왜곡과 망각을 넘어 치열한 삶 현장으로

●미국 저널리스트 브루스 왓슨 '빵과 장미' 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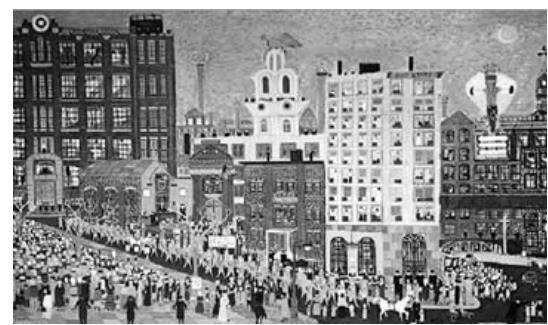
“우리는 행진하고 행진한다 / 숨겨진 무수한 여성들이 울부짖으며 함께 간다 / 우리는 아득한 옛날부터 그녀들이 부르던 빵의 노래를 부른다 / 허드렛일에 지친 그녀들의 정신은 예술도 사랑도 아름다움도 거의 알지 못했다 / 맛, 우리는 빵을 얻기 위해 싸운다, 하지만 우리는 장미도 얻기 위해 싸운다”



1912년 로렌스 섬유 파업에서 여성 노동자들이 행진을 하고 있다. (zinnedproject.org 제공)

## 1912년 '로렌스 파업' 주목...노동운동 역사 되새겨 시·공간 넘어선 감동적 연대 통해 민중 서사시 복원

1911년 시인 제임스 오펜하임은 '빵과 장미'에서 이렇게 노래했다. 노동자의 생존권과 인간다운 삶을 의미하는 '빵과 장미'는 일하는 사람 모두의 염원이 함축된 말이



'빵과 장미 파업'을 기념해 그린 렐프 파사넬라의 벽화 '빵과 장미 파업'

다. 이 책은 이 '빵과 장미'를 얻기 위해 함께 싸우고 돌보며 경이로운 역사를 써내려간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오펜하임의 시와 여기에 곡을 붙인 주디 콜린스의 노래, 그리고 지치지 않고 노동계급의 삶과 투쟁을 이야기하는 켄 로치의 영화에서 우리는 '빵과 장미'를 만난다. 또한 미국과 유럽에는 '빵과 장미'라는 이름의 사회 프로그램이 수백 개나 되고 이 사건의 본고장인 로렌스에서는 배고픈 사람에게 따뜻한 밥을 주는 음식창고 '빵과 장미'가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1912년 1월 미국 '로렌스 파업' 혹은 이 파업에서 여성 노동자가 '우리에게 빵을 달라, 장미를 달라'고 쓰인 피켓을 들었다 해 '빵과 장미 파업'이라고 불리는 이 투쟁이 어떻게 일어났고 노동운동, 사회운동의 역사에서 어떤 위상을 차지하는지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노동운동과 사회운동에 한 획을 그었을 뿐만 아니라 100년이 지난 지금도 풍부한 영감을 주고 있지만 이 사건은 미국의 맹목적인 애국주의와 '빨갱이 사냥'의 여파로 왜곡됐고 아예 잊혀져 버렸다.

미국 저널리스트인 브루스 왓슨은 110년 전 51개

국에서 '악속의 땅'을 찾아 일하고 투쟁했던 남성과 여성, 아동들의 민중 서사시를 복원해 21세기를 사는 우리를 치열한 삶의 현장, 투쟁의 현장으로 안내한다. 책 '빵과 장미'(빵과장미재단·홍기빈 옮김)를 통해서다.

수십 년 세월이 흘러 그날의 진실을 알고 있던 사람들은 하나하나 세상을 떠났고 이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다시 기록할 책임은 후손들과 역사가들에게 남겨졌다.

체 게바라의 얼굴이 그려진 멋진 티셔츠처럼, 유행으로 소비되며 이미지와 실체가 유리된 '빵과 장미'라는 기호 뒤에 숨겨진 투쟁의 전체상을 복원하기 위해 왓슨은 손에 넣을 수 있는 모든 자료를 꼼꼼히 수집해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두텁게 기술해 21세기를 사는 우리를 1912년의 로렌스로 인도한다.

'빵과 장미'는 전쟁 같은 파업과 일상의 이야기이자 성별과 민족·연·직종을 뛰어넘은 감동적인 연대의 이야기다. 100년 전 신화가 아닌, 영원히 지속될 이야기다. 이 책에서 저자는 주류 사회가 그동안 덮어버렸던 치열한 민중 서사를 되살리며 이를 어떻게 기억해야 하는지 묻고 있다. /최명진기자

### 새로 나온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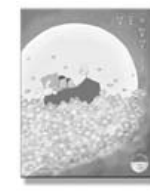
▲영원한 천국=정유정 저자  
소설가 정유정의 신작 '영원한 천국'이 출간됐다. 세계의 변화를 선형적으로 감지해 그 안에서 가장 인간다운 것이 무엇인지 탐구해온 작가의 이번 신작은 '완전한 행복'에 이은 욕망 3부작의 두 번째 책이다. 소설은 독자를 위해 준비된 거대한 블록버스터와 같다. 시간과 공간을 오가며 펴진 세계를 구현한다. 소설의 한 축에는 유망으로 둘러싸인 세계가 있다. 찾으려는 자와 빼앗으려는 자, 도망치려는 자와 기다리는 자가 모여 그야말로 '복마전'을 이룬다. 인물들 각자의 욕망이 겨울바람처럼 매섭다. 현실 너머로 질주하는 인간의 욕망을 탐구할 시간이다. /은혜나무·1만9천800원



▲화기가 사랑한 밤=정우철 저자  
고요하고 아름다운 밤은 화기에게 번뜩이는 영감과 따뜻한 위로를 전했다. '장 프랑수아 밀레'는 소박한 농민의 일상을 마무리하는 아름다운 밤 풍경을 찾아냈고, '빈센트 반 고흐'는 생의 마지막 불꽃을 지퍼 별이 빛나는 밤하늘을 담았다. 빛의 화가 '클로드 모네'는 힘겨운 시기 무채색으로 뒤덮인 삶을 캔버스에 담았다. 초현실주의 거장 '르네 마그리트'는 소외된 현대인들의 고독을 초승달로 표현했다. /오후의서재·2만2천원



▲수학이 생명의 언어라면=김재경 저자  
수학이나 생물학을 좋아하는 학생이나 독자조차 대부분 수리생물학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실정이다. 수리생물학의 최전선에서 수리 모델을 이용해 생명 현상을 탐구하는 KAIST 수리과학과 교수이자 수학자인 저자는 이 책에서 생체 리듬, 신약 개발, 수면 패턴, 팬데믹 등에 관한 다양한 문제에 수학이 실제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친절하게 설명한다. 또한 수학교육을 전공한 교육자로서 의학이나 생명과학, 수학에 관심 있는 학생들에게 이 시대가 요구하는 역량과 자질이 무엇인지, 수학의 진정한 쓸모와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생생하게 보여준다. /동아시아·1만8천원



▲달꽃 밥상=지영우 글·그림  
기억을 잃어버린 할머니, 아빠와 아이, 세 식구의 저녁 밥상이 단출하다. 매일 가족들을 돌보며 밥을 차리던 할머니의 빈자리가 고스란히 느껴지는 밥상. 한밤중에 배고픈 아이는 여자아이를 변한 할머니와 함께 여행을 떠난다. 우유갑 기차를 타고 칙칙폭폭, 산과 들을 건너 개미 따라 반딧불이 빛 따라 고봉밥 담은 초가집을 찾아간다. 보름달이 환한 밤에 펼쳐지는 아이와 할머니의 여정이 아름답고 몽클한 감동을 선사하는 이야기다. 이 작품은 돌보는 존재에서 돌봄을 받아야 하는 존재가 된 할머니가 삶의 여정 안에서 보듬어지는 내용을 감동적으로 그려냈다는 평을 받으며 제4회 세계절기문학대상 수상하기도 했다. /사계절·1만6천800원

## '광주비엔날레 30년'...과거와 현재, 미래 조망

조인호 광주미술문화연구소장 '청춘 비엔날레...' 출간



광주비엔날레 창설 30주년에 맞춰 특별한 저서가 발행됐다.

광주비엔날레재단 초기부터 23년간 조직원으로 몸담았던 조인호 광주미술문화연구소장이 펴낸 책 '청춘비엔날레, 광주비엔날레 30년 이야기'다.

총 2부로 구성된 이 책은 광주비엔날레 출범부터 역대 수장, 역대 전시 등을 통해 30년 역사를 다양한 관점에서 조망한다.

먼저 1부 '비엔날레 30년, 그 서사와 사람들'은 광주비엔날레의 창설, 조직 과정 등 한국에 첫 비엔날

레가 자리하면서 한국 미술계 안에서 불러일으킨 반향과 이를 둘러싼 인물들의 인터뷰를 통해 그 기억을 진술한다.

2부 '비엔날레로 세상을 밝히다'는 1995년 제1회 광주비엔날레부터 올해 제15회에 이르기까지 역대 광주비엔날레 주제와 주요 작품을 조망한다. 이를 기반으로 진행된 참여자 중심의 공공프로그램을 돌아보며 예술 프로젝트가 활성화된 배경을 연결해 본다. 광주라는 도시 특장적 맥락을 강조한 광주폴리, 국내외 미술 및 문화기관 네트워크의 장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는 광주비엔날레 파빌리온 등을 살펴본다. /최명진기자

아울러 국제큐레이터코스 운영과 동시대 미술 담론을 제시하는 정론지 'NOON' 발행 등 미술 현장의 주요 이슈와 과제, 대안 등을 모색하는 시도를 통해 광주비엔날레가 수행한 예술적 응답 또한 분석했다.

박양우 광주비엔날레 대표이사는 "광주비엔날레 창설 30주년에 맞춰 현장감 있는 광주비엔날레 30년의 이야기를 접할 수 있어 이번 책 출간이 의미 있게 다가온다"며 "재단 초창기부터 23년간 동고동락한 직원의 시선으로 광주비엔날레 역사를 다시금 접할 수 있어 더욱 뜻깊다"고 밝혔다.

한편 저자 조인호는 제1회 광주비엔날레가 열렸던 이듬해 1996년부터 2018년까지 23년간 광주비엔날레재단 전시부장과 정책기획실장으로 근무했으며, 현재 광주에서 미술사가로 활동하고 있다. /최명진기자

www.kjdaily.com



광주매일신문 구독QR

## ◀ 광주매일신문을 펼치면 광주·전남의 미래가 보입니다

지역의 품에서, 독자의 곁에서 늘 사랑받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시내 지역**

- 중앙지국 222-8171
- 산수지국 224-4188
- 학운지국 673-6836
- 화정지국 372-9140
- 금호지국 376-7153
- 풍암지국 603-0311
- 노대지국 674-3581

**지방 지사**

- 목포지사 061)270-8689
- 동문지사 061)278-0740
- 남문지사 061)245-3797
- 신안지사 061)980-8300
- 순천지사 061)746-1600
- 여수지사 061)651-6433
- 나주지사 061)335-0005
- 광양지사 061)793-6800
- 구례지사 061)782-4696
- 담양지사 061)383-5566
- 곡성지사 061)362-5746
- 고흥지사 061)832-6290
- 보성지사 061)852-6644
- 화순지사 061)373-7795
- 장흥지사 061)863-6800
- 강진지사 061)432-8899
- 해남지사 061)535-5849
- 영암지사 061)473-7151
- 오치지국 261-9461
- 문흥지국 261-9462
- 일곡지국 573-3200
- 첨단지국 971-7374
- 치명지국 371-9584
- 수완지국 955-0451
- 광신지사 944-0993
- 무안지사 061)453-3645
- 함평지사 061)322-0882
- 영광지사 061)353-5133
- 장성지사 061)394-3636
- 완도지사 061)555-0134
- 진도지사 061)542-4330

▶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좌로 338번길 16(구동1-21) ▶ 대표전화:062)650-2000 ▶ 구독문의:062)650-2022